

## 오륙도 칼럼



곽태욱

설은 음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자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험벗고 굶주렸던 6, 70년대의 설도 마찬가지였다.

객지로 돈 벌러 나갔던 사람이 설 선물보따리를 풀러치면 식구들이 둘러앉아 양말 한 켤레에도 웃었고 사람 한 봉지에도 크게 기뻐했다. 아이들의 설빔은 형이나 언니가 입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 기운 것이 전부였고, 어쩌다 새 고무

신이라도 한 켤레 얻을 양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설날 되기를 학수고대하며 며칠 밤잠을 설쳤다.

먹을거리도 극히 한정적이어서 사탕 몇 알이나 오징어 다리 몇 가닥만 있어도 단연 친구들의 우상이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을 수 없어 어머니 몰래 훔쳐 먹은 설음식이 그만 배탈을 일으켰을 때는 그보다 억울할 데도 없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설날의 백미는 단연 세뱃돈이었다. 붉은색한 1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세뱃돈으로 받으면 벌써 한해가 만사행통할 줄 알았다. 떡국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으면 최고의 설날이었다. 당시의 문헌동, 특히 필자가 살았던 배경중·고등학교 밑은 깎아지른 비탈길에 판잣집이 즐비해 금

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지리지'도 가난한 이들의 '아슬아슬한 터전'이었지만, 그래도 설 축제는 어김없이 즐겼다. 편도 1차선 도로를 건너면 철길이었으며, 그 너머는 연탄공장 사료공장 주정공장이, 그 뒤편으로 동천이 흐르고 있었다.

설날 행사를 마친 뒤에 아이들이 모여 든 곳은 주로 사료공장과 연탄공장 사이의 빈 공터였다. 어른들이 거적을 펼쳐놓고 병 둘러서서 윗가락을 던지는 바람에 아이들은 한쪽 구석 땅바닥에서 윗가락 대신 빈 고무장갑을 이용해 윗가락을 했다. 어떤 아이들은 철길 복판에서 자치기놀이도 했고, 고무놀이로 구슬치기도 했다.

기차 레일 위에 엮여있던 병뚜껑이 종이처럼 얇아진 딱지는 시차기(비석치기) 놀이에서 재화처럼 취

급된 놀이도구였고, 거적을 돌돌 말아 기차 레일 위에 얹은 널뛰기는 기차가 오면 화급히 치우기 바빴다. 동천 가에 얼음이 얼면 팽이 치기도 하고 썰매도 지쳤다. 또 곱게 뻗은 유리가루를 밟고와 섞여 말린 연줄은 연날리기에서 다른 아이의 연줄을 끊는 꾀장을 얻기도 했다. 제기차기를 할 때는 때때로 리 형들이나 어른도 끼여 놀았다. 대보름날에 어른들이 달집태우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쥐불놀이로 설 대미를 장식했다. 하지만 그처럼 시끌벅적한 설 축제도 살립살이가 어려우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없기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게다.

새해의 낯섦에 대하여 근심하며 계획을 다지고 활력을 얻어야 하는 설날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살벌이며 차려며 세배는 한잔 남의 이야기요, 기다리고 맞이할 이 없는 설이라면 더욱 쓸쓸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수광은 설날을 눈물이 필 만큼 마음이 애달프고 근심이 어리는 '달도일'이라 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제사상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져 그런 표현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 설날은 이른 아침에 향초를 피워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남께 제사를 올리는 한편 그 해의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설 쉼다'고 했다. 옛날 궁중에서는 설을 맞아 악귀를 쫓는 행사를 열었고, 민가에서는 농악을 울리며 마을의 액운을 몰아내고 마을의 번영과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빌었다. 또한 정월 보름날까지 이어지는 설 기간 동안의 놀이문화를 통하여 겨우내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해 한해의 건강이 유지되길 기원하였으며, 이웃 간에는 더욱 돈독한 정을 쌓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때문에 시끌벅적하게 논다는 것은 통기간, 세대간, 이웃 간의 소통이자 화합의 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텔레비전에, 멀티영화관에, 컴퓨터에, 인공썰매장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설을 혼자서도 보낼 수 있으니, 시끌벅적하게 어울려 논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로 인연방해가 되어버렸다. 설 놀이도 특정한 장소에서 한정된 것만 열리는 뉴스거리가 고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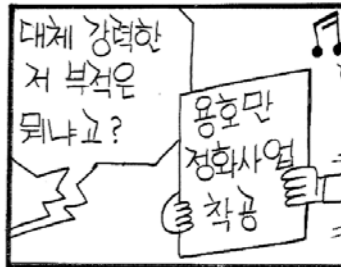
설 풍경을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비록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한때 어울려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을 나누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 "설 잘 쇠셨습니까?"하는 인사말이 그래서 2010년 경인년을 설에 더욱 실감하게 느껴진다.

소설가·문헌3동

## 신선대

<169>

채 규중



로 들어가지 않도록 망을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내 곳곳을 살펴야 할 것이다.

황승환(대원5동)

## 선웅의 1000자 지혜

### 분수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뜻인데, 어렵게 어렵게 장사를 하다가 어쩌다 수중에 큰 돈이 들어오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일을 벌리고 천하라도 전듯 목에 힘을 주다 쫘악 망해버린 사람들을 종종 본다.

춘추시대 기(杞)나라의 도읍지 옹구(雍丘)에 북궁식(北宮植)이란 여부가 있었다.

어느 날 밤,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 광채가 백보 밖에서 비치는 구슬 하나를 주웠다. 옹구 사람들이 풀려와 저마다 한마디씩 축하를 하였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겠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송나라 대부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수레를 장식할 구슬 열 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홉 개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 구슬을 비단으로 싸서 예쁜 상자에 넣고어서 나를 따라 나서십시오. 임금님께 헌상할 수 있도록 주신해

드리겠소. 이제 곧 당신은 부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궁식이 송나라 대부를 따라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진나라에서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말씀드렸다.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버지는 갑자기 통곡을 하였다.

"이 일을 어쩌나! 우리 집은 옹구에서 벌써 십대(十代)째 살아오

지만, 그동안 배 한 척에 의지하면서 분을 지냈다. 이제 네가 그 구슬을 임금님께 헌상하면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갑자기 부귀하게 되면 교만해질 것이고, 교만하게 되면 성격이

바뀔 것이고, 성격이 바뀌면 나쁜 일을 할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끝내는 큰 화를 입게 되고 말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다시 지금처럼 살기를 바란다. 하여도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아버지는 야광주(夜光珠)를 박살내 버렸다.

사람은 분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분을 박차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것마저 잃고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번역문학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태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안돼

청소년들에게는 슈퍼에서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여전히 어디서나 그것을 구입 할 수 있어 문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술과 담배를 구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면 술과 담배를 얼마든지 판다고 한다.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도 그렇지만 슈퍼에서 앞에서 속아주는 건지 몰라서 속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사복 경찰과 주류통제국

직원들이 합정단속을 통해서 술을 파는 슈퍼를 철저히 가려내는데 만약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3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꼭 단속이 무서워서 아니라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슈퍼 주인들이 모든 청소년들은 다 자기의 친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술과 담배를 파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민경화(문현3동)

### 동성하이타운 앞 교통정체 해결을

마을버스를 이용해 감만2동에서

모퉁 지하철까지 출퇴근 하는 사람으로서 출퇴근할 때 교통정체현상이 너무 심한 곳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건의한다.

출근할 때 보통 20분 소요되는 시간이 퇴근할 때는 길면 1시간, 짧아도 40분이 넘게 걸린다. 이유는 동성 하이타운 앞부터 대원동 놀음까지 차량 꼬리물기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까닭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성하이타운 사거리에서 부산공고 앞이 심한 지체현상이 보인다. 한코스 가는데 가다 서기를 반복해 보통 10분까지 걸린다.

구경이나 해당 관청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이곳에 나와 현황을 살피고 적절한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관계기관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박필중(감만2동)

### 배수로 입구 그물망을

얼마 전 경성대에서 출발해 바람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LED조명등 시범 교체

대중교통버스 조명이 어둡다고 건의하신 문현3동 우항화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게서 건의하신 시내버스 조명 개선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내버스 조명등을 기존 형광등에서 친환경 절전형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시범적으로 11번, 77번, 96번노선 26대에 조명등을 교체하여 운행 중

에 있습니다. 조도 측정결과 기존 61lux에서 219lux로 시내버스 내부가 상당히 밝아진 것으로 나타나 개선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차량의 안전운행과 타 차량에 대한 영향 정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확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대중교통과·박두영)

### 전단지 살포 강력 단속

대학로 일대 환경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용호3동 홍정우씨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경성대·부경대 거리는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 업소의 무분별한 광고전단지 살포 등으로 가로정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매일 3회(아침, 오전, 오후)이상 가로정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변에 살포된 광고전단지는 수거하여 파쇄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김동진)

## 제1회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정기연주회를 다녀와서

## 열정이 넘치는 무대에 '박수갈채'

제1회 부산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정기연주회가 지난날 27일 저녁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렸다.

구창장과 시·구의원, 주민 등이 중극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합창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율동이 무대에 올려졌다.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해 6월 남구와 노래를 사랑하는 49명의 어린이로 구성하였으며 6개월 여 간의 집중적인 연습으로 기량을 갈고닦아 열정이 넘치는 첫 공연을 펼쳤다.

현재 마산시립합창단 부수석인 김주근씨의 지휘로 '아름다운 노래' '즐거움 노래' '신나는 노래'가 대마법로 선을 땀다.

특히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가운데 안무를 맡았던 '아빠 힘내세요', 뮤지컬 'Grease' 중 'We Go Together', '7공주의 OST' 중 '소중한 사람'을 앙중맞은 율동으로 소화해 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정순 기자

또한 초청연주 '페스티보 클라리넷 콰이어'의 '마법의 성' 연주와 '벨리시모 남상중창단'의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멋진 공연도 관객들의 흥을 한층 돋갔다.

공연 마지막 '거위의 꿈'은 수화와 함께 합창을 해서 더욱 감동을 주었다. 소프라노 파트인 박혜민(문현초 6)은 "공연을 잘 마쳐서 기쁘요. 제 꿈은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요. 우리 단원들이 정확한 발음과 화음으로 더욱더 사랑받는 합창단이 되길 바래요"라고 밝혔다.

김주근 지휘자는 "맑고 깨끗이 않은 어린이들과 함께 해서 너무 기쁘다. 연습 때도 활기차고 명랑한 어린이들은 서로 평균기도 하고 웃으면서 지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협동심이 키워졌다"며 "남구 문화특구에 새로운 싹을 틔운 소년소녀합창단이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사절단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 최민식의 진실+삶 이야기

물건을 사려고 나온 두 여인과 어린이의 모습이 다정스럽다. 무슨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연스럽다. 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오로지 현실만이 있기에 사실성을 포착한다. 숨김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리얼리즘 사진이다. 휴머니스트 사진작가·대원1동

## 2010년도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 모집기간: 2010. 3. 2~3. 24
- 응시지역: 남구에 주소를 두거나 남구소재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 교부처 및 접수처: 남구청 문화체육과(단, 근무시간중에 한함)
- 공개오디션: 2010. 3. 27(토) 13:00 남구보건소 4층 대강당
- 문 의: 남구청 문화체육과 (☎ 607-4372)

## 남부중·고등학교 학생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청소년,성인(남·여)
- 모집인원 및 기간 제한 없음, 수시모집
- 장 소 문현3동, 문현기동대 옆 건물(남부경찰서 자리에서 이전)
- 특 전 수업료 무료, 교과서 제공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부를 위한 한국어 무료강좌도 실시합니다.
-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563401-01-186289
- 연락(교무실) 622-1205, 010-4544-4734

##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 11면에 게재된 '뱀지 저금통의 행복바이러스' 기사 중 홍대범 대표이사를 윤대범(사인) 대표이사로 바로잡습니다. 또 북구 사상은 사상구 학장이 맞게에 정정합니다.

## 나의 생각

## 우암·감만·용당 지역 경전철 도입을



최태길

얼마 전 용호동에 경전철이 도입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남구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슴이 확 막히는 듯한 답답함도 밀려왔다.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우암·감만·용당 지역에도 경전철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우암·감만·용당동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향만·물류수송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인해 극도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수십년을 살아왔다. 마을은 도심속 오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마저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형적으로도 타지역과 접근성이 어려운 우암·감만·용당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때가 왔다.

특히 이 지역에 앞으로 1만 5,0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 무엇을 내세워 분양할 수 있을かを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남구이면서 대원·용호동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우암·감만·용당동을 발전시킬 수 있고 모든 민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전철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 할 때 남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이 지역 6만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 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경전철 도입에 있어 기존의 철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막대한 공사비 절감효과는 물론 북항 재개발사업과의 연계, 유엔특구, 이기대, 백운동 등 남구가 자랑하는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관광사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이 생겨난지 벌써 오래다. 어느 특정한 곳에 편향된 지역 개발이 아닌 모두에게 이롭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고민을 이제 작은 정부라고 일컫는 지자체에서도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 남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남구 지역 곳곳이 소외되는 곳 하나 없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서부터 정책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추진해 다듬게 잘사는, 그래서 30만 주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구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견지와 우암·감만·용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해결을 위해 경전철 도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가 <비매출>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